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10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다”

- 계 21:1-11 -

1. 마법의 땅을 지나 ‘뿔라’라는 나라에 이름

(사 62:4-5)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뿔라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너머, 절망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파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여기는 하늘 나라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받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받기실 것”(사 62:5)이라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새로 세워지는 자리기도 했다. ...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지방을 지나가면서 여행을 하며 거친 그 어느 동네에서 보다는 크게 기뻐했다.

새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성 전체가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래 금빛 찬란한 데다가 영광의 햇빛까지 비치니 한 시바빠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천은 그만 몸살이 나고 소망도 한바탕 병치레를 했다. 증상이 너무 심해 여정을 중단하고 갈망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대야 했다. “너희가 내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아 5:8)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도 남았다.

2. 두 명의 순례자(천사)를 만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금빛 옷을 입고 얼굴에서 해처럼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두 남자를 만났다. 남자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나고 묻기에 대답을 해주었더니 그동안 어디서 묵었으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고, 무슨 어려움과 즐거움을 얻었느냐고 캐물었다. 자초지종을 시시콜콜 설명하자 두 남자가 말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고작 두 가지 난관(사망의 강과 증명서)이 남았을 뿐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하자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3. 사망의 강을 만나다

한 줄기 강물이 성문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강물은 깊고 건너갈 다리는 없었다. 순례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른 길이 없냐고 물었다. 두 남자는 지체없이 대답했다.

“있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 단 두 명만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두 순례자는 길벗들에게 수심의 깊이가 어떠냐고 물으니 수심의 깊이는 그곳의 임금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뛰어들자마자 크리스천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크리스천은 울부짖었다.

“형제님, 죽음의 텃이 나를 덮친 게 틀림없으니 아무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못 볼 것 같소!”

크리스천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옛 기억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순례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일깨워 줘도 소용없었다. 입만 열면 두렵다는 말만 했다. 성문에 가기는커녕 강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않을까 잔뜩 겁에 질린 눈치였다. 순례에 나서기도 전에, 그리고 여행 중에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몹시 괴로워했다.

4. 소망씨가 끝까지 격려하다

소망은 쉴 새 없이 말을 걸며 크리스천을 다독였다. “형제님, 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맞으러 나와서 기다리네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 형제일 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네는 줄곧 소망을 잃지 않았으니...”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소망은 불쌍한 순례자에게 소리쳤다.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힘없이 말했다. “똑바로 살았더라면 지금쯤 주님이 도와주셨겠지만, 죄를 지은 탓에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버려둔 채 떠나신거야.”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이다

소망은 포기하지 않았다. “형제님,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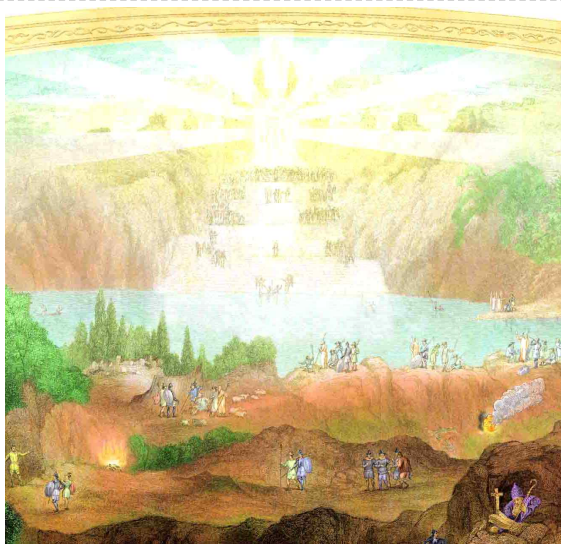
레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시 73:4-5)는 말씀을 잊으신 것
 니까? 강물에 빠져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형제
 님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가르침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주신 시험입니다. 심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지 살
 펴보고 싶으신 겁니다” ...

한동안 씨름을 벌인 끝에 크리스천은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 주님이 다시
 보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사
 43:2)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리하여 두 순례자는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넜다. 원수들은 돌처럼 굳어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6. 마침내 천성에 이른다

(히 12:22-24)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
 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순례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과 하늘나라
 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천사들은 그
 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
 노라고 했다.

“시온 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천사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생
 명나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
 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흰옷
 을 받아 입고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임금님과
 걸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 따위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
 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동안 수고한 데 대해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립니다. 임금님의 나라까지 오
 면서 뿌린 씨앗, 그러니까 기도와 눈물,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황금 면류관
 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언제나 뵈고 꿈꾸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분을 ‘참모습대로 뵈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머물 때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
 서 찬양하고, 외치고, 감사하면서 마음껏 섬기지 못했지만 거기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

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상쾌한 음성을 듣고 감격할 것입니다. 두 분보다 앞서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한편, 뒤따라 거룩한 땅에 도착하는 이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천국의 열쇠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다. 순례자들이 그 말에 따르자 예녹과 모세, 엘리야가 문간에 나타났다. 천사들이 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에게 말했다.

“하늘나라 임금님 섬기기를 좋아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기까지 찾아온 순례자들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출발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증명서(십자가 앞에서 받은 두루마리)를 내보였다. 서류는 곧장 임금님에게 올라갔다. 하늘나라의 왕은 문서를 잘 살펴보고 물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명령했다. “어서 문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라.” 천성의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어느새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무지의 최후

건너편에 도착한 무지는 앞서 지나간 두 순례자처럼 산을 올라갔다. 마중을 나오거나 거룩한 성으로 가는 동안 응원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성문 앞에 선 무지는 새겨진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는 금방 들어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열심히 문을 두드렸다. 문은 열리지 않고 성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다. “어디서 왔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무지가 대답했다. “나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은 증명서가 있어야 문을 지나 임금님을 뵈 수 있다고 했다.

무지는 주머니란 주머니를 죄다 더듬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증명서가 없단 말이에요?”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안내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결박하게 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무지를 던졌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에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